

고조선과 연(燕)의 전쟁 전후 고조선의 강역 변화

- 고조선이 상실한 '2,000여 리'의 실상과 범위를 중심으로 -*

이 성 재**

국문초록

고조선은 연의 침공을 받아 서부 지역 2,000여 리를 상실하고 만반한까지 패퇴하였다. 따라서 2,000여 리의 실상과 범위는 고조선의 강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쟁 당시 2,000여 리는 도보에 의한 이동 거리로 이해할 수 있다. 2,000여 리는 전국 시대 이전으로 보이며 약 748km로 환산되었다. 기점은 2,000여 리가 고조선의 서부 강역이므로 고조선과 연의 접경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랴오닝과 허베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고조선과 연은 대략 서기전 4세기 무렵 완허 유역에서 접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0여 리의 기점은 대개 완허로 상정할 수 있다.

개전 직전 연은 내전과 외침으로 인해 망국의 위기를 겪고 국가 체제가 붕괴되었다. 때문에 완허 중·하류 유역 대부분은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세력권 내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연은 고조선의 감시가 미치는 완허 유역이 아닌 구베이커우를 통한 산악 통로를 따라 우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연군의 주요 행군 경로는 완허를 도하여 다링허를 따라 전진하다가 이우뤼산에서 북으로 우회하여 요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당시 현 요하 하류 지역은 현재보다 해안선이 내륙 쪽으로 북상하고 그 북쪽으로 광대한 소택 지역이 펼쳐져 있어 이우뤼산 남쪽에서의 이동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기점인 완허에서 행군 경로를 따라 약 2,000여 리를 이동하면 랴오양 부근에 도달한다. 요컨대 2,000여 리의 지리적 범위는 완허 유역~요하 평원이며 이 지역이 곧 고조선의 서부 강역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2,000여 리의 종점인 만반한은 요하 평원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고조선, 2,000여 리, 연, 전쟁, 완허, 만반한

목 차

- | | |
|--------------------------|-------------------------|
| I. 서론 | Ⅲ. 연의 행군로와 2,000여 리의 범위 |
| Ⅱ. 고조선의 서변과 2,000여 리의 기점 | Ⅳ. 결론 |

* 본고는 2020년 롯데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 elmil2333@naver.com

I. 서 론

『위략(魏略)』에 따르면 고조선은 연(燕)의 침공을 받아 서부 지역 '2,000여 리'를 상실하고 만반한(滿番汗)까지 패퇴하였다. 따라서 고조선이 상실한 2,000여 리의 실상과 범위는 고조선의 강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0여 리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극히 일부의 부정론을 제외하면,¹⁾ 대체로 긍정론과 수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긍정론은 전반적으로 2,000여 리 상실 기록을 큰 이견 없이 수용하려는 관점이라고 하겠다. 긍정론에 속하는 연구는 고조선이 2,000여 리를 빼앗기고 타격을 입었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²⁾ 이에 반해 수정론은 2,000여 리가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정(里程)을 단축하려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론은 대체로 고조선이 패퇴한 이정을 2,000여 리가 아닌 1,000여 리로 주장하고 있다.³⁾ 이와 같은 연구는 이정의 단축을 '동호(東胡)'와 관련지어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⁴⁾

또한 고조선의 중심을 한반도 서북 지역으로 보는 연구는 현 요서(遼西)⁵⁾ 지역을 동호의 세력권으로 인식하고 있다.⁶⁾ 때문에 고조선의 '서부 영토 2천여 리'에 대해 회의적이다.⁷⁾ 그러나 랴오닝 지역의 고조선과 허베이 지역의 연은 늦어도 서기전 4세기 후반 개전 이전에 이미 동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요서 지역에 동호가 위치할 수 없다. 만약 연의 동쪽에 동호가 위치하고 있었다면 연의 고조선 침공 기도는(서기전 323~322년 무렵)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이 동호를 축출한 것은 서기전 300년 이후이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유목적 성격을 보여주는 누루얼후산(努魯兒虎山) 이북의 테잉쯔(鐵營子) 문화를 동호의 문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고조선의 서부 경계를 현 요동(遼東)까지로 보고 요서에는 동호의 세력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실제 지리적 범위를 이정의 환산을 통하여 도출하려는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대개 전국 시대나 한대(漢代)의 이정으로 환산한 수치를 이용하여 실제 지리적 범위를 도출하고 있다.⁸⁾ 긍정론의 시각에서 도출된 지리적 범위는 환허(灤河)~요하(遼河),⁹⁾ 선양(瀋陽) 서쪽 170

1) 이용범, 『고대의 만주관개』, 한국일보사, 1976, 28~32쪽.

2) 王建新,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 同成社, 1999, 214쪽; 조법중,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230~231쪽.

3) 安鼎福, 『東史綱目』 第四輯, 『攻朝鮮西方取地二千餘里』, 朝鮮經書大系續編 第十八輯, 朝鮮古書刊行會, 1915. 299쪽;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87쪽; 박경철, 「고조선의 대외관계 진전과 위만조선」, 『동북아역사논총』 44, 동북아역사재단, 2014, 35~36쪽.

4) 이병도, 「위씨조선흥망고」,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4, 서울대학교, 1956, 7~9쪽; 張碧波, 「古朝鮮研究中的誤區: 東北史評之」, 『黑龍江民族叢刊』 4, 黑龍江省民族研究所, 1999, 45쪽; 노태돈, 위의 논문, 2000, 87쪽.

5) 요동(遼東)·요서(遼西)·요하(遼河) 등은 시대와 맥락에 따라 성격과 의미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혼동과 착오를 피하기 위해 위 단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6)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291쪽, 302~303쪽.

7)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1 고대 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78쪽.

8) 그 밖에 '방(方)'의 개념을 이용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방 2,000여 리를 한 변이 2,000여 리인 정사각형 형태의 영토로 인식한다. 이로부터 2,000여 리의 지리적 범위를 방 2,000여 리인 나라의 한 변으로부터 도출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지리적 범위는 시핑커우(喜峰口)~랴오양허(遼陽河)이다(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176~180쪽).

9) 김성호, 「고대조선의 역사연구: 중국문헌에 나타난 고대조선의 역사적 맥락」,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37쪽.

km~평양 등이 있다.¹⁰⁾ 수정론의 관점에서 도출된 1,000여 리의 지리적 범위는 요하 하류(下遼河)~박천(博川),¹¹⁾ 차오양(朝陽) 일대~천산(千山),¹²⁾ 다령허(大凌河) 유역~천산(千山) 등이다.¹³⁾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 중에는 동일한 이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지리적 범위가 상이한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는 연구 상호간에 이정임의 환산 수치, 기준점의 위치, 지리적 경로 등의 추론 결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2,000여 리의 지리적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 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겠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주요 요소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2,000여 리의 지리적 범위와 실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전쟁 전후 고조선의 강역 변화 실태도 아울러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II. 고조선의 서변과 2,000여 리의 기점

고조선이 연과의 전쟁에서 패퇴한 사건에 대해 『위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① : 옛 기사(箕子)의 후예인 조선후(朝鮮侯)는 주(周)가 쇠약해지자, 연(燕)이 스스로 높여 왕(王)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후 또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역으로 공격함으로써 주왕실을 받들려 하였다. 그의 대부(大夫) 예(禮)가 간하므로 그만두었다.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을 설득하게 하니, 연도 전쟁을 멈추고 침공하지 않았다. 1-② :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사나워지자, 연은 장군 진개(秦開)를 파견하여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아 만반한(滿番汗)에 이르러 그 지역을 경계로 삼았으며 마침내 조선은 약화되었다.¹⁴⁾

고조선과 연 최초의 전면적 무력 충돌 위기는 연의 군주가 왕을 칭한 직후이므로 연역왕(燕易王) 10~11년(서기전 323~322년) 무렵에 발생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연의 고조선 침공 기도는 연과 고조선이 인접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두 세력은 늦어도 서기전 4세기 후반 무렵에는 경계를 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렵 고조선과 연이 접경하고 있었음은 앞서 살펴본 『위략』 뿐 아니라 『전국책(戰國策)』 「소진장위중복세연문후(蘇秦將為從北說燕文侯)」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장에는 “연의 동쪽에 조선과 요동(遼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¹⁵⁾ 『사기(史記)』 「소진열전(蘇秦列傳)」에도 위 『전국책(戰

10) 楊軍·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81쪽.

11) 권태원, 「중국동북평원과 고조선문화권」, 『충남사학』 11,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9, 58쪽.

12) 박경철, 앞의 논문, 2014, 35~36쪽.

13)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일조각, 1997, 41~42쪽.

14) 陳壽(撰), 裴松之(注),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韓 裴松之注『魏略』, 北京: 中華書局, 1982, 850쪽,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為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為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 乃止。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為界, 朝鮮遂弱。”

15) 劉向(集錄), 『戰國策』卷29, 「燕」蘇秦將為從北說燕文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1039쪽, “蘇秦將為從, 北說燕文侯

國策』과 거의 동일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쟁 무렵 연과 동서로 접경하고 있던 세력은 고조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조선과 연의 접경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대 ‘요동(遼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은 고조선과 근접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고조선의 강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요동을 ‘요하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범위로 이해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이 전국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래의 요동 개념에 대해 요수(遼水)¹⁷⁾ 동쪽 지역이라는 견해 외에도 요택(遼澤) 동쪽 지역,¹⁸⁾ ‘머나 먼 동쪽(遠在九州之東)’ 등의 주장이 있다.¹⁹⁾ 요동이 요수(遼水)의 동쪽이라는 의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요수는 요동의 기준이 되므로 요동 이전에 출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요동에 대응하는 요서(遼西)라는 명칭도 요동과 동 시대에 존재했을 것이다.

요동이라는 명칭이 보이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관자(管子)』 「지수(地數)」·「경중갑(輕重甲)」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동의 소금”이다.²⁰⁾ 『관자』의 성립 시대에 대해서는 한대의 삽입이나 교란 등의 문제가 있으나 전국 시대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다.²¹⁾ 『관자』의 주요 부분은 직하학궁(稷下學宮) 전성기에 활동한 학자들의 산물일 가능성이 있다.²²⁾ 「지수」·「경중갑」 등에도 량(梁), 조(趙) 등이 등장하고 있어 춘추 시대 기록이 유전되었다 해도 전국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²³⁾ 그런데 「지수」·「경중갑」 등에 등장하는 송(宋)은 서기전 286년에 멸망하였다. 따라서 이 기록의 주요 부분은 서기전 286년 이전 전국 중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는 앞서 설명한 직하학궁의 전성기와 부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요동은 이미 전국 중기 무렵의 기록에 등장하지만 요서라는 명칭은 찾아보기 어렵다.²⁵⁾

요수라는 명칭도 요동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보인다. 요수(遼水)가 등장하는 『산해경(山海經)』 「해내동경(海內東經)」 기록의²⁶⁾ 상한을 전국 시대 초까지 올려보려는 시각이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²⁷⁾ 「해내동경」

曰：「燕東有朝鮮、遼東，北有林胡、樓煩，西有雲中，九原，南有呼沱，易水。」

16)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編纂委員會(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辭書出版社, 1996, 271쪽.

17) 요하의 본래 명칭은 요수이다.

18) 張士尊, 「遼水」原爲「遼澤」考, 『當代中國遼寧發展·創新·和諧: 遼寧省第二屆哲學社會科學學術年會獲獎成果文集』, 遼寧大學出版社, 2009, 531쪽.

19) 권오중, 「전한시대의 요동군」,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271쪽; 유 엠 부젠(지), 이항재·이병두(역), 『고조선: 역사·고고학적 개요』, 서울, 소나무, 1990, 25쪽; 劉子敏, 「關於“遼東”的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1,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 1996, 81쪽; 王禹浪·蘆珊珊, 「遼東地名考」, 『黑龍江民族叢刊』 1, 黑龍江省民族研究所, 2011, 65쪽; 문안식, 『요하문명과 예맥』, 해안, 2012, 145쪽.

20) 郭沫若, 『郭沫若全集 歷史編』 8, 「管子集校(四)」, 北京: 人民出版社, 1985, 194쪽, 「地數」, “……齊有渠展之鹽, 燕有遼東之煮……” 「경중갑」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21) 김중무, 『제자백가 하』, 삼성미술문화재단, 1978, 316쪽; 安作璋(主編), 『中國古代史史料學』, 福建人民出版社, 1994, 146쪽.

22) 白奚, 「也談《管子》的成書年代與作者」, 『中國哲學史』 4, 中國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中國哲學史學會, 1997, 118쪽;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서울, 경인문화사, 2013, 138쪽.

23) 고본에는 조(趙)가 부(赴)로 되어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다(郭沫若, 앞의 책, 1985, 194쪽).

24) 전국 후기에 활동했던 추연의 주요 사상이 『관자』에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관자』의 성서가 전국 중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白奚, 앞의 논문, 1997, 117~118쪽).

25) 권오중, 앞의 논문, 1995, 271쪽.

26) 郝懿行, 『山海經箋疏』 第13, 「海內東經」, 巴蜀書社, 1985. “遼水出衛皋東, 東南注渤海, 入遼陽.”

27) 張士尊, 앞의 논문, 2009, 528쪽.

에는 거연(巨燕)이 보인다. 거연은 전성기의 연을 의미하므로 「해내동경」은 전국 후기를 상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요양(遼陽)'은 『사기』에서 처음 나타나는 지명이다. 「해내사경(海內四經)」은 서한 초기라는 주장이 있고,²⁸⁾ 동한(東漢)·위(魏)·진(晉) 시대까지 보는 시각도 있다.²⁹⁾ 따라서 「해내동경」 요수 관련 기록은 서한 전기 이후로 보아야 하겠다.³⁰⁾ 요수에 관한 기록은 전국 말 『여씨춘추(呂氏春秋)』 「유시람(有始覽)」에도 나타나지만,³¹⁾ 『설원(說苑)』 「변물(辨物)」이 가장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①: 제환공(齊桓公)이 북쪽으로 고죽(孤竹)을 치러 가다가, 비이(卑耳) 계곡에 10리를 미치지 못하여 갑자기 멈추었다.……10리를 더 가니 물이 있는데 요수라 이름하였다. 그곳에 표식을 하고 왼쪽으로 건너자 물이 복사빠까지 이르렀으나, 오른쪽으로 건너자 물이 무릎까지 이르렀다. 이에 요수를 건너니 과연 싸움에서 승리하였다.³²⁾

위 『설원』 「변물」에는 제환공(齊桓公)의 고죽(孤竹) 원정과 관련하여 요수(遼水)가 등장하고 있다. 『관자』에도 유사한 내용이 보이지만 '요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설원』을 정리한 유향(劉向)이 임의로 삽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³³⁾ 그러나 위의 비판이 지적인 바와 같이 『관자』·『설원』 등은 모두 유향이 정리한 서적이다. 한 인물이 정리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두 기록 중 어느 한 측만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하겠다. 또한 유향에 대한 의도적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작 이유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설원』은 중서(中書) 『설원잡사(設苑雜事)』를 저본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유향 자신의 창작이 아니다.³⁴⁾ 따라서 유향이 『설원』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추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³⁵⁾ 관련 출처 문헌과의 대조를 통해 『설원』이 거의 선진 시대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³⁶⁾ 다만 『설원』은 이야기 모음집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관자』보다는 늦은 대략 전국 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요동의 명칭은 요수, 요서 등보다 오히려 이른 시기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요동의 본래 개념이 문자 그대로 머나 먼 동쪽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요동 개념은 요하 동쪽 지역이라는 현대의 일반적 인식에 비해 유동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원계 세력의 확대와 더불어 요동의 위치나 범위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³⁷⁾ 서한 요동군 속현 무려현(無慮縣)은 대체로 의무려(醫巫閭)로 이해하고 있

28) 서경호, 『산해경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73쪽.

29)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3, 257쪽.

30) 「해경(海經)」에 나온 지명은 진·한대 이후로 보인다(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55~56쪽).

31) 廖名春·陳興安(譯注), 『呂氏春秋全譯』, 「有始覽」有始, 巴蜀書社, 2004, 「何謂六川? 河水、赤水、遼水、黑水、江水、淮水。」

32) 盧元駿(譯註), 『設苑今註今譯』卷18, 「辨物」,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631~632쪽, 「齊桓公北征孤竹, 未至卑耳谿中十里, 闔然而止……行十里果有水, 曰遼水。表之, 從左方渡至蹕, 從右方渡至膝。已渡, 事果濟。」

33) 서영수,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27쪽.

34) 徐光無, 『劉向評傳: 附劉歆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5, 401쪽.

35) 권아린, 「《설원(說苑)》《서록(敍錄)》을 통해 본 《설원(說苑)》의 성격 고찰」, 『중국문학연구』 55, 중국중문학회, 2014, 43쪽.

36) 권아린, 위의 논문, 2014, 43쪽.

37) 권오중, 앞의 논문, 1995, 272쪽.

다.³⁸⁾ 전국 시대 요동군을 이우위산(醫巫閭山)이나 다령허 이동 지구로 보는 관점도 위의 지리적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³⁹⁾ 따라서 한대 무렵 요동은 이우위산 혹은 다령허 동쪽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⁴⁰⁾ 명(明)나라 사람이 칭한 요동도지휘사(遼東都指揮司)에서 요동은 중국의 동북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⁴¹⁾ 이상과 같은 예는 요동의 위치나 범위가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동은 요수에서 비롯된 명칭이 아니며 본래 요수가 요동으로부터 추출된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요수는 애초 요동 지역을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명칭일 것이다.⁴²⁾ 2-①에 보이는 요수의 존재는 선진 시대 완허 유역이 요동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죽의 위치가 허베이 루룽(盧龍) 지역임을 생각할 때,⁴³⁾ 여기에 등장하는 요수는 대체로 완허 또는 그 인근을 흐르는 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⁴⁾ 비이 계곡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음을 이유로 2-①의 요수를 완허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⁴⁵⁾ 그러나 북위(北魏) 시대의 지리학자 역도원(酈道元) 역시 2-①이 완허 유역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인정하고 있다.⁴⁶⁾ 설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해도 ‘요수’라고 불린 강이 루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선진 시대 완허 주변 지역이 요동으로 불렸던 사실은 진·한 시대에도 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세황제(二世皇帝) 시대, 시황제가 세운 갈석(碣石)의 석비에 여러 신하들이 다녀온 일이 있었다.⁴⁷⁾ 그런데 『사기』는 이들이 ‘요동에 갔다 돌아왔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신하들이 갈석에 간 길에 요동을 거쳐 돌아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⁸⁾ 그러나 기록에는 신하들의 요동 경유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나 암시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제국 시대 요동은 요동군과는 별개로 갈석 주변 지역에 대한 관습적 명칭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습적 명칭은 대체로 선진 시대 요동의 개념과 범위에서 유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이는 요동국(遼東國)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요동국은 항우(項羽)가 책봉한 봉국으로서 연국(燕國)을 분할하여 세운 것이다.⁵⁰⁾ 요

38) 班固, 顏師古(注), 『漢書』 卷28下, 「地理志」 遼東郡 無慮, 中華書局, 1962, “師古曰, 卽所謂醫巫閭。”

39) 楊寬, 『戰國史(增訂本)』,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8, 677쪽; 曹中屏, 「古朝鮮的中心方位與疆域」, 『韓國學論文集』 14,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2005, 11쪽.

40) 曹中屏, 위의 논문, 2005, 11쪽; 서영수, 앞의 논문, 2008, 29~30쪽;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245쪽; 김정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440쪽.

41) 王禹浪·王文軾, 「“遼水”, “遼海”地名考」, 『哈爾濱學院學報』 12, 哈爾濱學院, 2010, 3쪽.

42) 권오중, 앞의 논문, 1995, 272쪽.

43) 郭沫若(主編), 『中國史稿地圖集 上冊』, 中國地圖出版社, 1996, 16쪽.

44) 박선미, 앞의 책, 2009, 243쪽;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80쪽; 陳業新, 「載縱載橫與無遠弗近: 秦漢時期燕薊地區交通地理研究」, 『社會科學』 8, 上海社會科學院, 2010, 108쪽.

45) 李健才, 『東北亞史地論集』, 蘭州大學出版社, 2010, 297~298쪽.

46) 酈道元, 『水經注』 卷14, 「濡水」, 時代文藝出版社, 2001, 114쪽; 문안식, 앞의 책, 2012, 146쪽.

47) 司馬遷(撰), 裴駰(集解), 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 『史記』(修訂本) 卷6, 「秦始皇本紀」, 北京: 中華書局, 2013, 二世皇帝元年, 335쪽, “二世與趙高謀曰: 朕年少, 初即位, 黔首未集附。先帝巡行郡縣, 以示疆, 威服海內。今晏然不巡行, 即見弱, 毋以臣畜天下。” 春, 二世東行郡縣, 李斯從。到碣石, 并海, 南至會稽, 而盡刻始皇所立刻石, 石旁著大臣從者名, 以章先帝成功盛德焉。皇帝曰: “金石刻盡始皇帝所爲也。今襲號而金石刻辭不稱始皇帝, 其於久遠也如後嗣爲之者, 不稱成功盛德。” 丞相臣斯, 臣去疾, 御史大夫臣德昧死言: “臣請具刻詔書刻石, 因明白矣。臣昧死請。” 制曰, “可。” 遂至遼東而還。”

48) 서영수, 앞의 논문, 2008, 23쪽.

49) 劉子敏, 「關於“遼東”的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1,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研究所, 1996, 80쪽.

50) 권오중, 앞의 논문, 1995, 276쪽.

동국의 범위는 연과 밀접한 상곡군(上谷郡)·어양군(漁陽郡)·우북평군(右北平郡)·요서군(遼西郡)·요동군(遼東郡) 등 5군의 범위와 대체로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⁵¹⁾ 허베이 지현(薊縣)으로 보이는 치소 무종(無終)은 춘추 전국 시대 활동했던 용적 무종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요동국 지역이 요동과 관련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지현 지역이 요동의 일부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요동국의 범위와 요동의 범위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요동국은 연의 5군 설치 이후의 확장된 인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선진 시대 요동의 범위에 대해 선행 연구는 연산(燕山)·완허 이북~한반도 청천강 일대,⁵²⁾ 누루얼후산·완허~청천강 일대,⁵³⁾ 완허 동쪽 등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⁵⁴⁾ 요동의 동단은 모호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서단은 앞서 고찰한 결과와 선행 연구가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대개 요동의 범위는 처음에는 비교적 넓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조선이 점차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요동의 범위 또한 점차 축소되었을 것이고 현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고조선은 서진하여 연과 접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전 무렵 고조선의 위치와 세력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의 동쪽 경계 또한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고조선과 연은 동서로 접하고 있었으므로 연 세력의 동쪽 경계를 파악하면 고조선 세력의 서쪽 경계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서주 중·후기부터 춘추 시대까지 북방 이민족 세력의 서주 방국에 대한 군사적 압력은 강력하였다. 서주 중·후기 중원계 세력의 북방 한계선은 대략 이현(易縣)을 넘어서지 못했고 한단(邯鄲)까지 후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춘추 시대 베이징 지역에 연의 유구나 유물은 매우 빈약하다. 오히려 이 지역 내에는 용·적 등으로 인식하는 북방 이민족 세력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이와 같은 북방 문화의 영향은 화이라이(懷來), 라이수이(涿水), 지현, 청더, 완핑(灤平), 평닝(豐寧), 츠청(赤城), 탕현(唐縣), 싱탕(行唐)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연대는 춘추 초기~춘추 후기 또는 춘추·전국 교체기이다.⁵⁷⁾ 이와 같은 북방 세력의 위협은 개전 직전인 조무령왕의 원정(서지전 307년) 이후에야 완화되었다. 그러나 북방의 동호가 세력을 확장하였으므로 연의 약세는 연소왕의 전성기에 이르러서야 호전될 수 있었다.⁵⁸⁾

51) 司馬遷(撰), 裴駰(集解), 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 『史記』(修訂本) 卷57, 「絳侯周勃世家」, 北京: 中華書局, 2013, “燕王盧綰反, 勃以相國代樊噲將, 擊下薊, 得綰大將抵、丞相偃、守陘、太尉弱、御史大夫施、屠渾都、破綰軍上蘭, 復擊破綰軍沮陽。追至長城, 定上谷十二縣, 右北平十六縣, 遼西、遼東二十九縣, 漁陽二十二縣。” 주발이 노관을 평정할 때 계(薊)를 우선 함락한 후 상곡·우북평·요서·요동·어양군을 평정하였다. 따라서 연국은 계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부와 5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중앙부는 옛 연국이고 그 외의 변군은 옛 요동국으로 보인다. 후에 변군이 중앙으로 귀속될(邊郡收納) 때에도 5군 외의 지역이 연국으로 분할되었다. 따라서 5군 지역은 옛 요동국 지역으로 볼 수 있다(矢沢忠之, 「漢初における北方郡国の再編」, 『東洋學報』 92: 1, 東洋文庫, 2010, 5쪽).

52) 劉子敏, 앞의 논문, 1996, 80쪽; 王禹浪·蘆珊珊, 앞의 논문, 2011, 65쪽.

53) 王禹浪·蘆珊珊, 앞의 논문, 2011, 68쪽.

54) 문안식, 앞의 책, 2012, 146쪽.

55) 민후기, 「서주 중, 후기 태항산맥 동쪽의 접경의 변화: 유명 청동기 출토 정황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1, 중국고중세사학회, 2019, 221쪽.

56) 北京市文物局(編), 『北京文物地圖集(上)』, 科學出版社, 2009, 8쪽; 紀烈敏,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基演變」, 『琉璃河遺址與燕文化研究論文集: 紀念北京建城 3060年』, 科學出版社, 2015, 361쪽.

57) 紀烈敏, 위의 논문, 2015, 356~357쪽.

58) 紀烈敏, 앞의 논문, 2015, 361~362쪽.

연이 전성기에 확장한 5군은 연이 고조선과 동호를 격파하고 새로 획득한 지역이다. 따라서 5군을 제외한 지역이 전쟁 이전 연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물론 연이 새로 설치한 군의 범위가 정확히 새로 탈취한 영토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5군의 설치 목적이 연이 새로 편입한 영토에 대한 행정적 지배에 있을 것이므로 그 범위나 위치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5군의 범위는 대개 베이징 창핑(昌平) 이북과 톈진(天津) 북부 지역, 허베이 장자커우(張家口)·청더(承德)·탕산(唐山)·친황다오(秦皇島) 등 일대로부터 동으로 네이멍구(內蒙古) 동남 지역 일부와 랴오닝 지역에 미친 것으로 보인다.⁵⁹⁾ 5군 가운데 가장 서쪽에 자리한 어양군·상곡군은 진·한 시대에 베이징 중심 지역을 동쪽과 북쪽으로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양군 서쪽 경계는 원위허(溫榆河) 부근까지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⁶⁰⁾ 베이징 창핑 북쪽은 쥔더우산(軍都山)·옌산, 톈진 지현의 북쪽과 동쪽은 옌산이 위치한다. 따라서 5군의 범위는 허베이 평원 지대와 산악 지대를 분리하는 자연 경계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차오바이허(潮白河)로부터 산하이관(山海關)까지 이어져 허베이 평원과 랴오닝을 가르는 옌산 지역이 험준하므로 정치 세력 사이의 천연 장벽 기능을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⁶¹⁾(〈사진 1〉). 그러므로 전국 시대 연의 주요 세력 범위는 대체로 현재 베이징과 톈진 지역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이상과 같은 사실은 고조선과 연이 개진



〈사진 1〉 하북 북부의 산악 지역

59) 楊寬, 『戰國史(增訂本)』, 上海人民出版社, 1998, 679쪽; 배진영, 『고대 北京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주), 2009, 346쪽; 后曉榮, 「秦代燕地五郡置縣考」, 『古代文明』 2, 東北師範大學世界古典文明史研究所·亞洲文明研究院, 2009, 72~77쪽.

60) 譚其驤(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秦, 西漢, 東漢時期』, 中國地圖出版社, 1996, 9~10쪽, 27~28쪽; 北京市文物局(編), 앞의 책, 2009, 45~46쪽.

61) 박상빈, 「中國 河北省 北部地域 前期 青銅器時代의 최근 연구동향」, 『白山學報』, 백산학회, 2009, 87쪽.

직전 대체로 허베이 동북 말단 지역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완허 유역이 포함된 요동이 연의 영역 밖에 있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결론은 등대장쯔(東大杖子) 유적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등대장쯔 유적은 다링허 상류 부근 후루다오시(葫蘆島市) 젠창현(建昌縣) 젠창향(碱廠鄉) 등대장쯔촌(東大杖子村)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풍부한 유물과 함께 많은 유구가 발견되었다. 돌무지무덤과 같은 유구의 형식이나 순생, 비파형 동검과 그 후계 형식인 중세형동검⁶²⁾ 등의 특징적인 유물은 등대장쯔 유적의 토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⁶³⁾ 등대장쯔 유적은 서기전 5세기 후반이나 말엽에 조성되어 서기전 4세기 무렵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⁶⁴⁾ 따라서 전국 시대 중기까지 이 지역에 연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⁵⁾

등대장쯔 유형은 다링허 상류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지형적 조건으로 볼 때 고조선과 연은 대체로 완허 유역에서 접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링허 상류는 청룡허(靑龍河)를 통해 완허 하류로 이어진다. 따라서 당시 라오닝 지역과 완허 유역은 하나의 '교통망' 속에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룡허 유역에서 비파형동검이 발견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의 방증이라 하겠다.⁶⁶⁾ 연산 사이에서 가장 큰 하곡 가운데 하나가 완허이다.⁶⁷⁾ 따라서 완허 유역은 지형적으로 단절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완허 하류는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여름·가을에는 홍수가 잦아 주변 거주민에 큰 피해를 주었다.⁶⁸⁾ 청나라 시대에는 완허를 건너기 위해 큰 배 수십 척으로 부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⁶⁹⁾ 또한 완허가 바다와 만나는 강어귀 주변 지역은 소금 생산지인 개펄이 형성되어 있었고,⁷⁰⁾ 전국 시대 중기 당시 하류 지역은 해안선이 내륙 쪽으로 들어와 있어 통행이 매우 곤란하였다.⁷¹⁾ 혹 완허를 통과해도 산하이관으로 대표되는 험준한 산과 좁은 해안으로 이루어진 연안로(遼海道)가 이어져 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연안로 중에는 수척(尺) 정도로 협소한 곳도 있었다.⁷²⁾ 한대의 연안로 지역은 여름·가을에 내리는 폭우로 인한 침수로 통행이 거의

62) 비파형에서 돌기가 소실되면서 세신화한 동검을 가리키며 요령식세형동검이라고도 칭한다.

63) 오강원, 「요령성 건창현 등대장자 적석목관곽묘군 출토 비파형동검과 토기」, 『科技考古研究』 12, 아주대학교 박물관, 2006, 10~16쪽; 오강원, 「중국 동북 지역 표형 장경호의 부장 양상과 확산의 배경과 맥락」, 『영남고고학』 78, 영남고고학회, 2017, 101~102, 106쪽.

64) 배현준, 「동주시기 연나라와 등대장자 유적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2015, 113쪽; 이후석, 「등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2016, 13~16쪽.

65) 배현준, 「춘추전국시기 연문화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2017, 146쪽; 이후석, 앞의 논문, 2016, 29~31쪽; 趙鵬, 「遼寧建昌東大杖子陶禮器墓葬研究」, 『知識文庫』 23, 哈爾濱日報報業集團, 2016, 221쪽, 223쪽.

66) 鄭紹宗, 「河北省發現的靑銅短劍」, 『考古』 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75, 226쪽.

67) 嚴耕望, 「歷代盧龍道行程考」, 『中國文化研究所學報』, 中國文化研究所, 1983, 39쪽.

68) 閻永增, 「論灤縣文化與灤河文化」, 『唐山學院學報』 1, 唐山學院, 2017, 40~41쪽.

69) 朴趾源, 「熱河日記」 卷7, 「還燕道中錄」, 朝鮮光文會, 1911, 17日 癸亥, 115쪽.

70) 王時光, 「秦漢時期環渤海地區水陸交通研究」, 渤海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13쪽. 서한 요서군 해양(海陽)에는 염관이 있었는데, 유수(濡水)는 남으로 해양으로 들어간다(班固, 顏師古(注), 『漢書』 卷28下, 「地理志」 遼西郡, 中華書局, 1962, 1625쪽). 유수는 대개 완허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완허 하류에 염관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1) 譚其驤(主編), 앞의 책, 1996, 27쪽.

72) 司馬光(編著), 胡三省(音注), 『資治通鑑』 卷269, 「後梁紀 4」, 均王 貞明 3年 2月, 中華書局, 1956, 8812쪽, “自關東北循海有道, 道狹處纔數尺, 旁皆亂山, 高峻不可越.”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산하이관을 통하는 연안로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된 것은 13세기 초 무렵의 일로 알려져 있다.⁷³⁾ 전국 시대에도 동일한 기후였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가 자주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환허 유역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의 힘이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스럽게 완충 지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요컨대 환허 유역은 고조선과 연의 접경 지역으로서 정치·군사·지리적으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겠다. 연이 이 지역을 5군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연의 시각에서 환허 유역이 이족(異族)의 영역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연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게다가 연은 서기전 316년 이래 대규모 내전과 외침, 군주의 사망 등 사실상의 망국(亡國)으로 인하여 국력이 급격히 추락하였다. 고조선은 이를 기회로 접경 지역인 환허 유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2,000여 리의 기점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조선과 연의 접경 지역인 환허로 볼 수 있다.

III. 연의 행군로와 2,000여 리의 범위

본고는 2,000여 리를 연군(燕軍)이 고조선의 서부 강역을 침공한 경로를 도보로 이동한 거리로서 인식하고 있다. 도보에 의한 이동 거리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먼저 연군의 이동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당시 랴오닝 지역의 해안선은 현재보다 더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그 위로는 대규모의 소택 지역이 펼쳐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⁷⁴⁾ 이 대규모 소택 지역은 대체로 이우위 산 이동에서 요하 평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옛 소택 지역에 대한 조선 시대 기록에 의하면 통행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 일제 강점기에도 랴오닝성 지역에는 요하·훈허(渾河), 훈허·타이쯔허(太子河) 사이, 다링허의 강어귀부터 북방까지, 하이청(海城)의 남북 지역 등에 일단의 늪지가 분포되어 있었다.⁷⁶⁾ 현재도 대규모 소택 지역이 형성되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갈대로 이루어진 소택 지역은 면적이 중화인민공화국 초까지도 약 1,000여 km²에 이르렀다. 서기 1995년 현재 갈대 총 생산량이 170,000~180,000톤에 달하여 중요한 제지 원료 기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⁷⁷⁾ 서력 기원 전후의 바다는 타이안(臺安)의 아래를

73) 韓茂莉, 『中國歷史地理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15, 232쪽.

74) 鄒逸麟(編著), 『中國歷史地理概述』(第三版), 上海教育出版社, 2013, 71~72쪽; 윤순옥·김효선·지아지엔칭·복기대·황상일, 「중국 요하 하류부 고대 요택의 공간 분포와 Holocene 중기 이후 해안선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24: 1, 한국지형학회, 2017, 59쪽.

75) 이승수, 「연행로 중 「료양-안산-광녕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회연구』 47, 한국한문학회, 2011, 580~582쪽.

76) 大原利武, 「貝水考」, 『滿洲に於ける漢代五郡二水考』, 近澤書店, 1933, 97~98쪽.

77) 牛煥光·馬學慧, 『中國的沼澤』, 商務印書館, 1995, 121쪽.

지나 안산(鞍山) 인근까지 이르고 있었으며 소택 지역은 동으로는 현 랴오양(遼陽) 주변까지, 그리고 북으로는 신민(新民) 남부 인근 지역까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⁷⁸⁾(〈그림 1〉).

연의 구체적인 행군 경로에 대해 선행 연구는 산악 지역으로의 우회로를 주장하였다. 이용범은 베이징 ⇨ 시핑커우(喜峰口) ⇨ 이현(義縣) ⇨ 선양 ⇨ 랴오양에 이르는 경로를,⁷⁹⁾ 박경철은 베이징 ⇨ 시핑커우 ⇨ 차오양 ⇨ 이현 ⇨ 이우위산 남쪽 ⇨ 요하 ⇨ 선양 ⇨ 만반한에 이르는 경로를 제시하였다.⁸⁰⁾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는 연의 행군 경로로서 주로 희봉구도(喜峰口道)를 제시하고 있다. 희봉구도는 허베이 첸시(遷西)에서 출발하여 완허와 푸허(瀑河)를 거쳐 평취안(平泉)을 지나 다링허 상류를 통해 랴오닝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⁸¹⁾ 연이 산악로를 이용하여 고조선을 침공하였을 것이라는 본고의 시각은 대략 선행 연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구체적인 연의 침공 통로로서 시핑커우를 제시한 것과 이현에서 이우위산 남쪽으로 요하를 건너는 경로를 주장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은 서기전 316년 무렵 이후 내전과 외침으로 인해 망국의 재난을 겪고 국가 체제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당시 접경 지역인 완허 유역은 대체로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통제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은 완허 유역의 시핑커우보다 다소 먼 거리를 우회하고 험준하나, 고조선의 감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원(密雲) 구베이커우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침공 당시 동호는 이미 축출되었으므로 연의 처지에서는 산악로가 완허 유역보다 군사적으로 안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범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선양을 랴오양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으므로 본고와 같이 이현에서 북으로 우회하는 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박경철은 이우위산 남쪽에서 요서로부터 요하를 건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이우위산~요하 평원 사이는 대개 거대한 소택 지역과 바다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우위산 남쪽으로 요하를 건너는 경로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링허 상류부터 이현까지 이르는 경로에 대해 선행 연구는 차오양을 거치는 대략적인 경로만 제시하고 있으나 연군은 대체로 다링허를 따라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연군의 주요 병종은 기병이 아닌 기동력이 낮은 보병이었다.⁸²⁾ 따라서 고조선의 지역 중심을 우회하여 현 요동으로 진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설사 우회가 가능했다고 해도 길어진 중심으로 인한 보급의 곤란과 역습의 우려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초에 연군의 주요 목표는 장래에 있을 제와의 전면전에 대비해 연 후방에 대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고조선의 군사력 약화'였다.⁸³⁾ 그렇기에 연은 고조선의 주요 지방 근거지를 방치하고 우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연은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중심으로 곧장 향하기보다는 다링허 유역을 따라 고조선의 주요 지방

78) 윤순옥 외, 앞의 논문, 2017, 59쪽.

79) 이용범, 「대륙관계사 고대편 상」, 『백산학보』 18, 백산학회, 1975, 21쪽.

80) 박경철, 앞의 논문, 2014, 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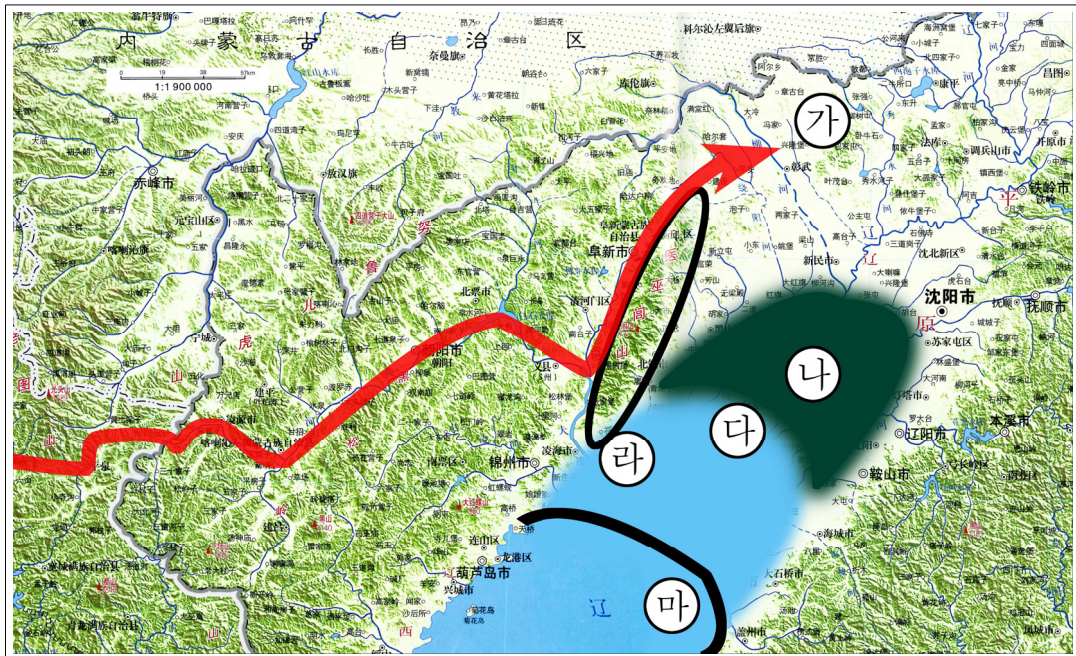
81) 王時光, 앞의 논문, 2019, 16쪽.

82) 박선희, 「고조선의 갑옷 종류와 특징」, 『백산학보』 56, 백산학회, 2000, 148쪽; 이성재, 「고조선과 연의 전쟁 연구: 전쟁 개시 배경 및 원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65~67쪽; 최영렬, 「전쟁의 목표달성 측면에서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 고찰」, 『군사연구』 146, 육군군사연구소, 2018, 46쪽.

83) 이성재, 위의 논문, 2016, 55쪽.

근거지를 격파·확보하면서 전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연군의 처지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식수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 근거지를 따라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비파형동검 집중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링위안(凌源), 카궈(喀左), 차오양, 베이파오 등 주로 다링허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요서의 주요 지방 근거지는 다링허 유역을 따라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주요 교통로 또한 이들 중심을 연결하는 선으로 조직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연군에게 적절한 행군로를 제공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옌샤두(燕下都)에서 구베이커우를 통과하여 랴허를 건너 핑취안을 거쳐 다링허 상류로 진입하여 다링허를 따라 이현에 이르고, 이우위산 산기슭을 따라 북으로 방향을 틀어 푸신, 장우 등을 거쳐 현 요동에 이르는 것이 연군의 주요 행군 경로였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1)).



〈그림 1〉 대략적인 연의 행군 경로와 주변 지형⁸⁴⁾

(㉑ 연의 진군 방향, ㉒ 소택 지역의 범위, ㉓ 전쟁 당시 추정 해안선, ㉔ 이우위산, ㉕ 현재 해안선)

연군의 침공 방향과 경로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근거로서 랴오닝 지역에서 발견된 연소왕의 명문이 새겨진 청동 무기를 들 수 있다. 1967년 랴오닝 베이파오 등관잉쯔(東官營子)에서 연왕직과(燕王職戈) 1점이 발견되었다.⁸⁵⁾ 또한 1992년 베이파오 싰관잉쯔(三官營子)에서 1점의 연왕직검(燕王職劍)이 수습되었다⁸⁶⁾(〈사진

84) 그림의 해안선과 소택 지역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서력기원 전후의 것을 참고하였다. 따라서 전쟁 당시의 해안선은 그림보다 다소 내륙 쪽으로 북상했을 가능성이 있다. 曉鳳 編著, 『中國地理地圖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1, 86~97쪽 그림을 수정·편집.

85) 公孫燕, 「燕王職之戈」, 『中國考古集成 2 東北卷』, 北京出版社, 1997, 1520쪽.

2)). 연소왕 관련 병기가 고조선과 연의 교류나 연인의 이주 흔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그러나 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링허 부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연소왕의 명문이 새겨진 점을 생각할 때 연군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베이파오는 다링허 유역 비파형동검 밀집 분포 지역 가운데 하나로서 고조선의 지방 근거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연군 또한 이 지역을 거쳐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1-②의 2,000여 리에 대하여 선행 연구는 전국 시대, 한대, 동한(東漢)·위(魏)·진대(晉代) 등의 이정으로 보고 있다. 1-②는 전국 시대 사건에 대한 한대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따라서 한대 이전의 척도로 이정을 이해하고 환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1-②의 2,000여 리 관련 기록은 기타 사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략』의 기록 가운데 2,000여 리만 한대의 이정으로 표시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히려 2,000여 리라는 구체적인 기록은 연 시대의 인식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00여 리의 이정은 전국 시대의 척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⁸⁸⁾



〈사진 2〉 라오닝 베이파오(北票) 발견 연소왕 관련 병기
(㉗ : 연왕직과, 89) ㉘ : 연왕직검⁹⁰⁾)

1리는 곧 300보인데 주(周) 초에는 8척이 1보였던 것이 6척 4촌으로 바뀌었다가 서한 시대에는 6척이 되었다.⁹¹⁾ 따라서 전국 시대의 1보는 대체로 6척 4촌으로 볼 수 있다. 주 시대의 양지척은 약 19.5cm이므로,⁹²⁾ 당시의 1리는 약 374m이고 1천리와 2천리는 각각 약 374km와 748km이다.⁹³⁾ 다만 1척을 최대 약 20.1cm까지 볼 수 있는데,⁹⁴⁾ 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리는 최대 약 386m, 1천리는 약 386km, 2천리는

86) 楊鐵男, 「對燕王職劍의初步考證」, 『中國考古集成 2 東北卷』, 北京出版社, 1997, 1521쪽.

87) 오강원,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 35: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69쪽.

88) 강인숙, 앞의 논문, 1987, 178쪽; 전대준·최인철, 앞의 책, 2010, 83쪽.

89)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河文明展 文物集萃』, 遼寧省博物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6, 98쪽.

90) 조양박물관(朝陽博物館). 필자 촬영 사진.

91) 박기수·이경룡·하원수·김경호(역주), 『사료로 읽는 중국 고대 사회경제사: 『사기』 『평준서』 · 『화식열전』, 『한서』 『식화지』 역주』,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5, 292~293쪽.

92)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113~114쪽; 박기수 외(역주), 위의 책, 2005, 292~293쪽.

93) 1리는 19.5cm×6.4×300=37,440cm이므로 1천리는 약 374km이고 2천리는 약 748km이다.

약 772km이다. 그런데 두 수치 사이의 차이가 미미하여(약 3%)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전국 시대 1리를 약 374m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2천리인 748km는 앞서 살펴본 대략적인 연의 진군 경로에 따라 완허로부터 핑취안을 지나 링위안 ⇨ 카쥘 ⇨ 차오양 ⇨ 베이파오 ⇨ 이현 ⇨ 푸신 ⇨ 장우 ⇨ 신민 ⇨ 선양을 경유하여 랴오양에 이르는 도보 길이인 약 758km와 대체로 부합한다⁹⁵⁾(〈그림 1〉). 이는 앞의 전국 시대 이정으로 약 2,027리에 해당한다. 더욱이 연이 동호를 축출한 1천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구베이커우에서 핑취안, 카라친기(喀喇沁旗)를 거쳐 츠핑에 이르는 도보 길이 349km(약 933리)는 앞서 도출한 약 374km(약 1,000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편 한대의 이정으로 환산할 경우 1리는 약 304m,⁹⁶⁾ 325m,⁹⁷⁾ 362~363m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⁹⁸⁾ 그런데 한대의 이정으로는 위연(居延) 한대 유적 사이의 거리를 발견된 목간의 기록과 비교하여 도출한 325m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치로 보인다. 이에 근거한 한대의 2천리는 약 650km이므로 완허로부터 선양까지의 거리인 약 692km(약 2,129리)에 근접한다.⁹⁹⁾

완허보다 다소 동쪽에 있는 다령허 상류(링위안)를 기점으로 잡는다고 해도 종점이 바위취안구(鯪魚圈區)에 접근하게 되는데, 인근에 가이저우(蓋州)가 있다. 2,000여 리가 축소보다는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때 바위취안구보다는 가이저우가 종점으로서 타당해 보인다. 가이저우까지의 거리는 약 711km이며 전국 시대 이정으로는 약 1,901리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가이저우는 만만한 지역일 가능성이 제기된 곳으로 무리는 없다고 하겠다. 『위략』에서 밝힌 2,000여 리는 전국 시대뿐 아니라 한대의 이정으로 환산해도 완허 유역에서 요하 평원에 이르는 거리와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기점을 다소 동쪽인 다령허 상류로 상정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2,000여 리가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는 일부 선행 연구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점을 연군의 애초 출발점인 서울 연사두로 상정하면 종점은 대체로 약 730km(약 1,952리) 떨어진 이현이 자리한 이우위산 지역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이른바 ‘연장성 유적’의 흔적이 이우위산 인근인 푸신 동쪽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 부합한다고 하겠다.¹⁰⁰⁾ 2,000여 리의 기점을 연의 중심 영토를 벗어나는 연군의 출발점인 허베이 외곽 구베이커우로 상정하면 대체로 약 764km(약 2,043리)로서 선양 지역을 종점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고조선이 상실한 2,000여 리는 허구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일정하게 당시의 사실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것은 또한 『위략』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른바 2,000여 리의 기점은 완허 유역, 종점은 요하 평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조선이 실제로 상실한 지역은 대체로

94) 박홍수, 앞의 책, 1999, 357쪽; 박기수 외(역주), 앞의 책, 2005, 293쪽.

95) 본고에서 제시한 도보 거리 수치는 구글 지도에 의한 것이다.

96) 권태원, 앞의 논문, 1999, 58쪽.

97) 陳夢家, 『漢簡考述』, 『考古學報』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63, 106쪽; 楊軍·王秋彬, 앞의 책, 2006, 81쪽.

98) 박홍수, 앞의 책, 1999, 357쪽.

99) 楊軍·王秋彬, 앞의 책, 2006, 81쪽.

100) 高青山·傅仁義·許玉林·王成生·姜念思·王曉賓, 『東北古文化』, 春風文藝出版社, 1992, 113~115쪽; 甌燕, 앞의 논문, 1999, 4쪽.

‘요서 지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2,000여 리의 종점에 위치한 만반한 또한 요하 평원을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IV. 결 론

본고는 『위략』에서 언급한 고조선이 상실한 2,000여 리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정의 환산을 통해 지리적 범위를 고찰하였다. 전쟁 당시 거리가 멀리 떨어진 두 지점 사이의 정확한 거리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0여 리는 도보에 의한 이동 거리로 이해하였다. 2,000여 리는 전국 시대의 이정으로 파악하여 약 748km로 환산하였다. 기점은 2,000여 리가 고조선의 서부 강역이므로 고조선과 연의 접경 지역으로 보았다. 랴오닝과 허베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던 고조선과 연은 서기전 4세기 무렵에는 환허 유역에서 접경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직전 연은 대규모 내전과 제·중산 등의 침공으로 인해 망국의 재난을 겪고 국가 체제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고조선 또한 이 시기에 연에 대한 정치·군사적 공세를 강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위략』에 보이는 「교학(驕虐)」의 실제적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환허 중·하류 유역 대부분은 고조선의 정치·군사적 영향권 내로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연은 고조선 침공을 위해 환허 유역을 피하고 구베이커우와 같은 산악 통로를 통해 우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군의 행군 경로는 연사두를 출발하여 구베이커우⇒핑취안⇒환허⇒링위안⇒커쥘⇒차오양⇒베이파오⇒이현⇒푸신⇒장우⇒신민 등을 경유하여 요동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개전 당시 현요하 하류 지역은 현재보다 해안선이 내륙으로 북상하고 그 북쪽으로 광대한 소택 지역이 펼쳐져 있어 이우뤼산 남쪽으로의 이동은 곤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 후 고조선의 서변은 요하 평원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2,000여 리의 범위는 환허 유역~요하 평원이며 이 지역이 곧 고조선의 서부 강역이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결론은 2,000여 리의 종점인 만반한을 첸산 서쪽으로 보는 선행 연구 경향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략』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郭沫若, 『郭沫若全集 歷史編 8』, 「管子集校(四)」, 北京: 人民出版社, 1985.
 盧元駿(譯註), 『設苑今註今譯』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8.
 朴趾源, 『熱河日記』, 朝鮮光文會, 1911.
 班固, 顏師古(注), 『漢書』, 中華書局, 1962.

- 司馬光(編著), 胡三省(音注), 『資治通監』, 中華書局, 1956.
- 司馬遷(撰), 裴駰(集解), 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 『史記』(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3.
- 安鼎福, 『東史綱目』, 朝鮮古書刊行會, 1915.
- 酈道元, 『水經注』, 時代文藝出版社, 2001.
- 廖名春·陳興安(譯注), 『呂氏春秋全譯』, 巴蜀書社, 2004.
- 劉向(集錄), 『戰國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陳壽(撰), 裴松之(注), 『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82.
- 郝懿行, 『山海經箋疏』, 巴蜀書社, 1985.
- 김정배, 『고조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 김종무, 『제자백가 하』, 삼성미술문화재단, 1978.
-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2004.
- 문안식, 『요하문명과 예맥』, 해안, 2012.
- 박기수·이경룡·하원수·김경호(역주), 『사료로 읽는 중국 고대 사회경제사: 『사기』 「평준서」·「화식열전」, 『한서』 「식화지」 역주』, 청어람미디어, 2005.
- 박대재,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2013.
- 박선미,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2009.
- 박홍수, 『한·중도량형제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 배진영,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주), 2009.
- 서경호, 『산해경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신승하,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 유 엠 부쥘(저), 이항재·이병두(역), 『고조선: 역사·고고학적 개요』, 소나무, 1990.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 1 고대 I』,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2012.
- 이용범, 『고대의 만주관계』, 한국일보사, 1976.
- 전대준·최인철, 『조선단대사(고조선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조법중,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 高青山·傅仁義·許玉林·王成生·姜念思·王曉賓, 『東北古文化』, 春風文藝出版社, 1992.
- 郭沫若(主編), 『中國史稿地圖集 上冊』, 中國地圖出版社, 1996.
- 譚其驤(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二冊: 秦, 西漢, 東漢時期』, 中國地圖出版社, 1996.
- 北京市文物局(編), 『北京文物地圖集 (上)』, 科學出版社, 2009.
- 徐光無, 『劉向評傳: 附劉歆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5.
- 安作璋(主編), 『中國古代史史料學』, 福建人民出版社, 1994.

- 楊寬, 『戰國史(增訂本)』, 上海人民出版社, 1998.
- 楊軍·王秋彬,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 牛煥光·馬學慧, 『中國的沼澤』, 商務印書館, 1995.
- 李健才, 『東北亞史地論集』, 蘭州大學出版社, 2010.
- 中國歷史大辭典·歷史地理卷編纂委員會(編), 『中國歷史大辭典 歷史地理』, 上海辭書出版社, 1996.
- 鄒逸麟(編著), 『中國歷史地理概述』(第三版), 上海教育出版社, 2013.
- 韓茂莉, 『中國歷史地理十五講』, 北京大學出版社, 2015.
- 王建新,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 同成社, 1999.
- 강인숙, 「기원전 4~3세기 고조선의 서변」, 『비파형단검문화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7.
- 권아린, 「《설원(說苑)》《서록(敍錄)》을 통해 본 《설원(說苑)》의 성격 고찰」, 『중국문학연구』 55, 중국중문학회, 2014.
- 권오중, 「전한시대의 요동군」, 『인문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권태원, 「중국동북편원과 고조선문화권」, 『충남사학』 11,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9.
- 김성호, 「고대조선의 역사연구: 중국문헌에 나타난 고대조선의 역사적 맥락」,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노태돈,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단군과 고조선사』, 사계절, 2000.
- 민후기, 「서주 중, 후기 태항산맥 동쪽의 접경의 변화: 유명 청동기 출토 정황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1, 중국고중세사학회, 2019.
- 박경철, 「고조선의 대외관계 진전과 위만조선」, 『동북아역사논총』 44, 동북아역사재단, 2014.
- 박상빈, 「중국 하북성 북부지역 전기 청동기시대의 최근 연구동향」, 『백산학보』, 백산학회, 2009.
- 박선희, 「고조선의 갑옷 종류와 특징」, 『백산학보』 56, 백산학회, 2000.
- 배현준, 「동주시기 연나라와 동대장자 유적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 『백산학보』 103, 백산학회, 2015.
- 배현준, 「춘추전국시기 연문화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집단과의 관계: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87, 한국고대사학회, 2017.
- 서영수,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 2, 일조각, 1997.
- 서영수, 「요동군의 설치와 전개」,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오강원, 「요령성 건창현 동대장자 적석목관곽묘군 출토 비파형동검과 토기」, 『과기고고연구』 12, 아주대학교 박물관, 2006.
- 오강원, 「『삼국지』 배송지 주와 『위략』 고조선 관련 기사」, 『정신문화연구』 35: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 오강원, 「중국 동북 지역 표형 장경호의 부장 양상과 확산의 배경과 맥락」, 『영남고고학』 78, 영남고고학회, 2017.
- 윤순옥·김효선·지아지엔칭·복기대·황상일, 「중국 요하 하류부 고대 요택의 공간 분포와 Holocene 중

- 기 이후 해안선 변화」, 『한국지형학회지』 24: 1, 한국지형학회, 2017.
- 이병도, 「위씨조선흥망고」,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4, 서울대학교, 1956.
- 이성재, 「고조선과 연의 전쟁 연구: 전쟁 개시 배경 및 원인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이승수, 「연행로 중 “료양-안산-광녕 구간”에 대한 인문지리학적 검토」, 『한국한문학회』 47, 한국한문학회, 2011.
- 이용범, 「대륙관계사 고대편 상」, 『백산학보』 18, 백산학회, 1975.
- 이후석,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한국상고사학회, 2016.
- 최영렬, 「전쟁의 목표달성 측면에서 위만조선과 한의 전쟁 고찰」, 『군사연구』 146, 육군군사연구소, 2018.
- 公孫燕, 「燕王職之戈」, 『中國考古集成 2 東北卷』, 北京出版社, 1997.
- 甌燕, 「燕國開拓祖國北疆的歷史功績」, 『文物春秋』 4, 河北省文物局, 1999.
- 紀烈敏, 「燕山南麓青銅文化的類型譜系及基演變」, 『琉璃河遺址與燕文化研究論文集: 紀念北京建城 3060年』, 北京: 科學出版社, 2015.
- 白奚, 「也談《管子》的成書年代與作者」, 『中國哲學史』 4, 中國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中國哲學史學會, 1997.
- 楊軍, 「遼東本周箕子國別議」, 『東北史地』 3, 吉林省社会科学院, 2007.
- 楊鐵男, 「對燕王職劍的初步考證」, 『中國考古集成 2 東北卷』, 北京出版社, 1997.
- 嚴耕望, 「歷代盧龍道行程考」, 『中國文化研究所學報』, 中國文化研究所, 1983.
- 閔永增, 「論灤縣文化與灤河文化」, 『唐山學院學報』 1, 唐山學院, 2017.
- 王時光, 「秦漢時期環渤海地區水陸交通研究」, 渤海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 王禹浪·蘆珊珊, 「遼東地名考」, 『黑龍江民族叢刊』 1, 黑龍江省民族研究所, 2011.
- 王禹浪·王文軾, 「“遼水”, “遼海”地名考」, 『哈爾濱學院學報』 12, 哈爾濱學院, 2010.
- 劉子敏, 「關於“遼東”的考辨」, 『中國邊疆史地研究』 1, 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研究所, 1996.
- 張碧波, 「古朝鮮研究中的誤區: 東北史評之」, 『黑龍江民族叢刊』 4, 黑龍江省民族研究所, 1999.
- 張寶秀, 「“京北鎖鑰”: 古北口的歷史演變」, 『北京聯合大學學報』 9, 北京聯合大學, 1998.
- 張士尊, 「“遼水”原為“潦水”考」, 『當代中國遼寧發展·創新·和諧: 遼寧省第二屆哲學社會科學學術年會獲獎成果文集』, 遼寧大學出版社, 2009.
- 鄭紹宗, 「河北省發現的青銅短劍」, 『考古』 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75.
- 趙鵬, 「遼寧建昌東大杖子陶禮器墓葬研究」, 『知識文庫』 23, 哈爾濱日報報業集團, 2016.
- 曹中屏, 「古朝鮮的中心方位與疆域」, 『韓國學論文集』 14,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2005.
- 陳夢家, 「漢簡考述」, 『考古學報』 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63.
- 陳業新, 「“載縱載橫”與無遠弗近: 秦漢時期燕薊地區交通地理研究」, 『社會科學』 8, 上海社会科学院, 2010.
- 后曉榮, 「秦代燕地五郡置縣考」, 『古代文明』 2, 東北師範大學世界古典文明史研究所·亞洲文明研究院, 2009.
- 大原利武, 「貝水考」, 『滿洲に於ける漢代五郡二水考』, 近澤書店, 1933.
- 矢沢忠之, 「漢初における北方郡国の再編」, 『東洋學報』 92: 1, 東洋文庫, 2010.

* 이 논문은 2020년 8월 27일에 투고되어,
2020년 9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10월 8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0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Changes in the Territory of Gojoseon before and after the War between Gojoseon and Yan

– Focusing on the Reality and Scope of 2,000 Lis that Gojoseon Lost –

Lee, Seong-jai*

About the beginning of the 3rd century BC, according to Weilue Gojoseon was retreated after losing more than 2,000 lis to the Yan. About 2,300 years ago, the exact distance between two distant points was unknown, over 2,000 lis are assumed to be walking distances. Over 2,000 lis are understood as milestone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and convert to about 750 kilometers.

According to the record that the starting point of over 2,000 lis was the western part of Gojoseon, it was considered as the border area between Gojoseon and Yan. The border area between Gojoseon and Yan is presumed to be the Luanhe basin.

At that time, the march route of Yan's army seems to have departed Yanxiadu, left Gubeikou, passed Pingchuan, followed from Luanhe to Dalinghe, and headed north along Yiwulushan to Fuxin, Zhangwu, etc. to enter Liaodong. At the time of the war, the lower shore of Liaohu had a coastline rising to the north, and a vast swamp spread over it. Therefore, it was impossible to move to the south of Yiwulushan.

In short, the walking distance from Luanhe, the starting point, to Liaohu is more than 2,000 lis. In conclusion, the over 2,000 lis lost by Gojoseon ranged from Luanhe basin to Liaohu plain. And over 2,000 lis can be said to be the western territory of Gojoseon. These conclusions can be seen as proof of the credibility of the Weilue.

[Key Words] Gojoseon, over 2,000 lis, Yan, war, Luanhe, Manbanhan

* Ph. D. Candidate in the Interdisciplinary Archaeology at Inha University